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의 타당화 연구 II : 이혼상담집단과 자녀상담집단을 중심으로*

권 정 혜[†]

채 규 만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K-MSI) 타당화 연구의 일환으로 이혼문제로 가정법률 상담소를 방문한 여성 35명과 자녀문제로 아동상담소를 방문한 여성 27명을 대상으로 K-MSI를 실시하여 기준집단에 속한 정상여성들의 K-MSI점수와 비교하였다.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거나 자녀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의 결혼만족도가 낮으리라는 가정 하에 K-MSI 검사의 전반적 불만족 척도와 11개 하위척도 상에서 정상집단과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이혼상담집단과 정상집단을 비교해 본 결과 이혼상담집단이 성역할 태도 척도, 원가족 문제 척도, 자녀 불만족 척도를 제외한 다른 모든 하위척도(비일관적 반응 척도, 관습적 반응 척도, 전반적 불만족 척도, 정서적 의사소통 척도, 문제해결 의사소통 척도, 공격행동 척도, 공유시간 갈등 척도, 경제적 갈등 척도, 성적 불만족 척도, 자녀양육 갈등 척도)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특히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 정도를 전체적으로 측정하는 전반적 불만족 척도는 정상집단과 이혼상담집단을 잘 변별해 주었다. 한편 자녀상담집단은 정상집단에 비해 자녀 불만족 척도, 자녀양육 갈등 척도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을 뿐 아니라 전반적 불만족 척도,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척도,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척도에서도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 연구 결과는 K-MSI가 이혼상담집단이나 자녀상담집단의 전반적인 결혼불만족 정도를 잘 반영해 줄 뿐 아니라 이들이 결혼생활에서 불만족을 느끼는 문제영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줌으로써 임상현장에서 타당하고도 유용한 검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본 연구가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 서울 본원, 부천 지부, 성남 지부, 수원 지부, 평택 지부, 춘천 지부 소장님 그리고 원광아동상담센터와 정인아동상담센터 소장님에게 감사드리며, 연구조교로 참여하여 자료수집 및 통계 분석을 도와준 고선규, 박두진, 박승주에게 감사 드림.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권 정 혜 /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1 136-701 /
Fax : 02-928-9203 / E-mail : junghye@kucncx.korea.ac.kr

이혼율의 급증과 함께 우리 나라에도 부부문제나 갈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결혼만족도를 제는 검사도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많은 연구자들이 결혼만족도를 제는 검사를 번안하거나 제작하여 이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있다(이민식, 김종술, 1995; 이인수, 유영주, 1986; 정현숙, 1997).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검사가 전반적인 결혼만족도 또는 부부 적응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결혼생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우리 나라에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 혈연중심의 부자관계가 부부관계보다 중요시되고, 부부생활과 관련된 사적인 문제를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수치로 여겨온 사회 문화적 전통이 남아 있다. 이로 인하여 부부생활에 문제가 있어 상담을 위해 찾아온 경우에도 부부문제를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실정이다. 만일 결혼만족도 검사가 전반적인 만족도의 수준만을 밝혀준다면 부부상담을 위해 찾아온 부부에게 이미 확인된 사실을 재확인시켜주는 것 이상의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할 것이다.

또한 우리 나라 부부들의 결혼만족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하는데도 결혼생활의 갈등을 문제영역별로 평가할 수 있는 다면적 결혼만족도 검사가 매우 필요하다. 그 동안 우리 나라 부부들의 결혼만족도를 결혼기간이나 나이, 학력에 따라 살펴본 연구들이 전반적인 결혼만족도를 측정하는 연구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정보를 얻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유영주, 1979; 정현숙, 1996).

우리 나라 부부들의 결혼만족도를 다면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권정혜와 채규만(1998)은 Snyder(1979a)에 의해 제작된 결혼만족도 검사(MSI,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를 한국실정에 맞게 번안, 수정하여 2차의 예비검사를 거쳐 문항을 확정하였다.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K-MSI)를 998명의 우리 나라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비교적 높은 신뢰도와 구성타당도를 지닌 검사임이 밝혀졌다.

본 연구는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확립하기 위한 연구로 이혼상담집단과 자녀상담집단의 결혼만족도를 정상집단과 비교하여 K-MSI의 공존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1

이혼상담집단과 정상집단의 결혼만족도 비교

우리 나라는 최근 가족 구조가 핵가족으로 바뀌고 가족내 관계가 부자관계에서 부부관계 중심으로 바뀌어감에 따라 부부간의 애정과 인격적 결합에 많은 가치를 두게 되었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여성들이 늘어났으며, 이와 함께 평등주의와 개인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이혼율이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다. 사법연감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이혼율이 1970년 4.34%에서 1985년 10.47%, 1994년 15.10%로 급증하였다. 그렇지만 이혼의 증가 현상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경험적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이혼한 사람들을 직접 면담하여 이혼의 원인을 탐색하는데 그쳤다(곽배희, 1993; 김정옥, 박경규, 1993; 조정아, 1995).

Lewis와 Spanier(1979)는 결혼을 '결혼의 질'과 '안정성'으로 구분하여 개념화하였으며, 사회적 교환이론을 적용하여 결혼의 질이 높을수록 결혼안정성도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에서도 여러 연구를 통하여 검증되었다(박찬비, 서병숙, 1987; 안소영, 1991; 윤경자와 Schumm, 1997; 전춘애, 박성연, 1993; 최연실, 1987). 즉,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해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현재의 결혼생활을 지속시키는 경향이 강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게 느끼는 사람은 현재의 결혼을 해체하려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결혼생활의 안정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결혼만족도는 하나의 중요한 예측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몇몇 연구를 살펴보면 전춘애와 박성연(1993)은 결혼 지속기간이 10

년 이하인 기혼여성 228명을 대상으로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결혼만족도가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 가장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Schumm, Bollman과 Jurich(1981)가 만든 Abbreviated Barrett-Lennard Relationship Inventory(RI)로 결혼만족도를 재는 검사로서 그 타당도가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가진다. 또한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간의 높은 관련성을 보고한 윤경자와 Schumm(1997)의 연구에서도 결혼만족도를 평가하는데 3문항으로 구성된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Schumm, Paff-Bergen, Hatch Obiorah, Copeland, Meens & Bugaighis, 1986)을 사용함으로써 결혼만족도의 측정에 한계점을 드러내었다. 이들의 연구가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Lewis와 Spanier(1979)의 모델을 검증하는 것인 만큼, 이 연구에서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표준화된 결혼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면 연구의 내적 타당도가 더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연구들의 또 다른 제한점은 이혼을 실제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여성들을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고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기혼여성들 중에 설문지상에서 결혼안정성이 낮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를 다면적으로 평가하는 표준화된 검사인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를 사용하여 이혼상담 여성들의 결혼만족도를 기준집단의 정상여성들과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결혼안정성이 실질적으로 낮은 이혼상담집단 여성들의 결혼만족도가 낮은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나라 부부들에게서 결혼만족도와 결혼의 안정성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혼상담 여성들의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 점수를 기준집단의 정상여성들과 비교해봄으로써 결혼생활의 특정영역 중에서 어떤 영역에서 특히 결혼만족도가 낮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1998년 5월부터 8월까지 서울, 부천, 성남, 수원, 평택, 대전, 춘천 지역의 가정법률 상담소에 이혼상담을 위해 방문한 여성 35명을 연구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들의 연령은 평균 40.26세로 30대(37.1%)와 40대(31.4%)가 가장 많았으며, 학력은 고졸(41.2%), 대졸(32.4%)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의 K-MSI 검사 점수를 비교하기 위해 K-MSI의 표준화(권정혜, 채규만, 1998)에 사용된 기준집단 여성(N=540) 중에서 나이와 교육수준이 거의 일치하는 35명을 무선으로 선발하였다. 두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도구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Korean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는 결혼생활과 부부관계의 여러 가지 중요한 측면들에서 피검자가 느끼는 불만족의 성질과 정도를 확인하는 검사이다. 총 14개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 '아니오'로 답하는 16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하위척도가 측정하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비일관성 반응 척도(Inconsistency, INC): 20쌍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검사에 부주의하게 반응한 정도를 측정한다.
- (2) 관습적 반응 척도(Conventionalization, CNV): 부부관계의 사소한 문제를 부인하거나 부부관계를 지나치게 긍정하는 10개의 문항으로 자신의 결혼생활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왜곡하려는 경향성을 측정한다.
- (3) 전반적 불만족 척도(Global Distress, GDS): 총 22문항으로 전체적인 부부관계의 분위기나 불만족을 측정한다.
- (4) 정서적 의사소통 척도(Affective Communication, AFC): 배우자에게 느끼는 애정이나 정서적인 친밀성의 정도를 재는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5) 문제해결 의사소통 척도(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PSC): 총 19문항으로 문제해결 의사소통의 비효율성과 부부관계에서 드러나는 의견의 불일치를 측정한다.
- (6) 공격 행동 척도(Aggression, AGG): 응답자가 경험한 배우자의 언어적, 신체적 공격의 수준을 총 10문항으로

표 1. 정상집단과 이혼상담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정상집단	이혼상담집단	
	(N=35)	(N=35)	
	빈도(%)	빈도(%)	
나이	20대	5(14.3)	6(17.1)
	30대	12(34.3)	13(37.1)
	40대	13(37.1)	11(31.4)
	50대	4(11.4)	4(11.4)
	60대	1 (2.9)	1 (2.9)
	평균	40.26세	39.77세
교육수준	초졸	3 (8.6)	4(11.8)
	중졸	4(11.4)	5(14.7)
	고졸	18(51.4)	14(41.2)
	대졸	10(28.6)	11(32.4)
결혼기간	5년이하	5(14.7)	3(11.1)
	5-10년	5(14.7)	6(22.2)
	10-15년	9(26.5)	6(22.2)
	15-20년	4(11.8)	4(14.8)
	20-25년	6(17.6)	4(14.8)
	26년이상	5(14.7)	4(14.8)
평균	11.45년	10.15년	
월평균 가계수입	100만원이하	3 (9.4)	5(19.2)
	100-200만원	15(46.9)	10(38.5)
	200-300만원	8(25.0)	5(19.2)
	300만원이상	6(18.8)	6(23.1)
직업	가정주부	24(68.6)	15(42.9)
	생산·단순노동직	1 (2.9)	6(17.1)
	상업서비스·숙련기술직	2 (5.7)	4(11.4)
	일반사무직	3 (8.6)	7(20.0)
	전문직	4(11.4)	2 (5.7)
	기타	1 (2.9)	1 (2.9)
결혼상태	초혼	33(100)	29(82.9)
	재혼이상	-	6(17.1)
평균 자녀수	1.94명	1.91명	

측정한다. (7) 공유시간 갈등 척도(Time Together, TTO): 배우자와 같이 보내는 시간의 정도와 부부간의 동료애의 정도를 총 10문항으로 측정한다. (8) 경제적 갈등 척도(Disagreement about Finances, FIN): 총 10문항으로 부부관계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불일치의 정도를 측정한다. (9) 성적 불만족 척도

(Sexual Dissatisfaction, SEX): 성생활에 대한 만족, 성관계에 대한 흥미, 성관계 중에 배우자의 감정표현 등을 총 13문항으로 측정한다. (10) 관습적 성역할 태도 척도(Role Orientation, ROR): 총 12문항으로 부부관계와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책임분담과 의사결정의 공평성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다. (11) 원가족 문제 척도(Family History of Distress, FAM): 원가족에서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나 부모의 결혼생활을 기술하는 총 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12)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척도(Conflict with In-Laws, CIL): 배우자 가족으로 인한 부부갈등의 정도를 총 10문항으로 측정한다. (13) 자녀 불만족 척도(Dissatisfaction with Children, DSC): 총 11문항으로 자녀의 정서적, 행동적 적응에 대한 걱정의 정도와 자녀관계의 질,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의 정도를 측정한다. (14) 자녀양육 갈등 척도(Conflict over Child Rearing, CCR): 자녀양육 및 훈육방식에 대한 배우자와의 갈등 정도를 총 10문항으로 측정한다.

절차

서울 가정법률 상담소와 부천, 성남, 수원, 평택, 대전, 춘천지역의 가정법률 상담소의 협조를 구해 이혼 상담을 위해 상담소를 내원한 방문자들에게 결혼만족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작성된 응답지를 우편과 팩스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컴퓨터로 자동 채점한 후 결과를 각 가정법률 상담소로 우송하여 상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적 분석은 SPSS 8.0을 이용했다.

결 과

이혼상담집단과 정상집단 여성의 결혼만족도를 비교하기 전에 두 집단간에 인구통계학적 변인에서 차이가 있는지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나이, $\chi^2(4, N = 70) = .30$, 교육수준, $\chi^2(3, N = 69) = .79$, 월평균 가계수입, $\chi^2(3, N = 58) = 1.59$,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혼상담집단의 여성들은 정상집단에 비해 관습적 성역할 태도 척도, 원가족

문제 척도, 자녀 불만족 척도를 제외한 모든 하위척도에서 결혼만족도가 낮았다. 즉 전반적인 불만족 척도와 정서적 의사소통 척도와 문제해결 의사소통 척도, 공격행동 척도, 공유시간 갈등 척도, 경제적 갈등 척도, 성적 불만족 척도, 배우자 가족간의 갈등 척도와 자녀관련 척도인 자녀양육 갈등 척도에서 이혼상담집단이 정상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이혼상담집단은 타당도 척도인 비일관적 반응 척도, $t(68)=2.59, p<.05$ 와 관습적 반응 척도, $t(68)=3.95, p<.001$, 에서도 정상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이혼상담집단은 정상집단에 비해 더 일관적이며 덜 관습적인 방식으로 검사에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 결과 이혼상담집단의 여성들이 정상집단에 비해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에서 전반적 불만족 척도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하위척도에서 검사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고한 전춘애와 박성연(1993)연구나 윤경자와 Schumm(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의 준거관련 타당도가 높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혼상담집단의 타당도 척도 점수가 정상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이들 타당도 척도가 응답자들의 검사태도를 민감하게 반영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이혼상담집단의 여성들은 정상집단에 비해 비일관적 반응 척도 점수가 더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이혼상담집단이 결혼만족도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정상집단에 비해 더 일관적이고도 성실하게 검사에 응답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관습적 반응 척도의 경우 자신의 결혼생활을 긍정적으로 왜곡하려는 경향을 측정하는데, 이혼상담집단이 결혼생활을 사회적으로 좋게 보이기 보다는 솔직하게 표현하고 개방적으로 논의하려는 응답태도를 가졌으리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표 2. 정상집단과 이혼상담집단의 K-MSI하위척도 t 검증

		정상집단 (N=35)		이혼상담집단 (N=35)		t	유의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비일관적 반응척도	INC	6.91	2.48	5.40	2.39	2.59	.012*
관습적 반응척도	CNV	3.31	2.51	1.31	1.64	3.95	.000***
전반적 불만족 척도	GDS	5.57	4.70	15.80	6.38	-7.63	.000***
정서적 의사소통 척도	AFC	5.86	3.06	9.60	3.54	-4.73	.000***
문제해결 의사소통 척도	PSC	8.51	4.27	14.22	4.64	-5.36	.000***
공격행동 척도	AGG	3.49	3.18	6.48	2.91	-4.12	.000***
공유시간 갈등척도	TTO	4.97	2.29	7.54	1.75	-5.27	.000***
경제적 갈등 척도	FIN	3.23	2.41	6.17	3.04	-4.48	.000***
성적 불만족 척도	SEX	3.69	2.69	5.91	3.17	-3.17	.002**
관습적 성 역할 태도척도	ROR	5.69	2.45	5.37	2.22	.562	.576
원가족 문제척도	FAM	4.49	2.20	4.42	2.25	.11	.915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척도	CIL	2.26	2.13	5.20	2.89	-4.85	.000***
자녀 불만족 척도	DSC	2.88	2.64	4.12	3.26	-1.69	.097
자녀양육 갈등척도	CCR	3.53	3.12	6.53	2.74	-4.08	.000***

주. 이혼상담집단의 자녀 불만족 척도와 자녀양육 갈등 척도는 N = 34이며, 정상집단의 자녀 불만족 척도와 자녀양육 갈등척도는 N = 32임.

* $p < .05$, ** $p < .01$, *** $p < .001$

본 연구 결과 이혼상담집단이 전반적 불만족 척도에서 정상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혼상담집단이 결혼생활 전반

에 걸쳐 불만족이 높다는 사실을 반영하며, 임상장면에서 전반적 불만족 척도를 선별도구로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혼상담집단은 정서적 의사소통 척도와 문제해결 의사소통 척도에서 점수가 높게 나왔다. 이는 이혼상담집단의 부부가 서로 애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소통 기술의 부족이 결혼불만족으로 이어지고 결혼안정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Gurman & Kniskern, 1981).

또한 이혼상담집단은 공격행동 척도, 공유시간 갈등 척도, 경제적 갈등 척도, 성적 불만족 척도의 점수에서도 정상집단에 비해 점수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나라 여성들이 이혼을 고려하여 상담을 받게 될 때 결혼생활의 불만족이 다양한 영역에 퍼져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결혼생활의 특수한 영역에서 갈등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다른 영역에까지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부부의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할 때 갈등의 확산은 더욱 일어나기 쉬울 것이다. 후속 연구를 통해 특수영역에서의 결혼생활의 불만족이 이혼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자녀와 관련된 두 개 척도 중 자녀양육 갈등 척도에서만 이혼상담집단의 점수가 더 높았는데, 이는 자녀를 자체에 대한 불만족보다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부의 의견 차이가 이혼을 고려하게 만든 결혼불만족의 주요 부분이라는 것을 반영한다. 다시 말해서 배우자에 대해 결혼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불만족이 축적되어도 자녀에 대해서는 같은 정도로 불만족을 지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이 결과는 자녀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결혼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불만족이 축적될 때 여성들이 이혼을 고려할 수 있다는 세태를 반영하기도 한다.

한편 원가족 문제 척도에서는 이혼상담집단과 정상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흔히 부모의 결혼생활이 불행할 때 그 자녀의 결혼생활이

불행하리라고 예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부모의 결혼생활이나 원가족에서의 가족문제가 자녀의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본인의 노력에 따라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그렇지만 이혼을 고려하는 여성들이 자신들의 결혼생활의 문제와 대조하여 부모의 결혼생활을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자신의 결혼생활이 불행할 때 부모의 결혼생활을 보다 부정적으로 회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에서 부모의 결혼생활과 자녀의 결혼생활의 관계를 직접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혼상담집단의 여성들과 정상집단의 여성사이에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지 않은 또 하나의 하위척도는 관습적 성역할 태도 척도인데, 이는 이혼을 고려하는 여성의 성역할 태도가 특별히 더 관습적이거나 진보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도 부부 중 한 배우자의 성역할 태도가 결혼불만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보다 남편과 부인의 성역할 태도에서의 큰 차이가 결혼불만족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후속연구에서 경험적인 자료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부부갈등을 감소시키고 이혼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이혼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부간의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과 갈등에 대한 효과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훈련 시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리라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각 부부들이 결혼생활의 어떤 특수 영역에서 불만족을 느끼는지 파악하고, 공유시간을 늘리고 성생활에서의 만족을 증가시키는 등 이들 특수영역에서 불만족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의견 차이를 조정해주고 효율적인 부모 역할을 가르쳐 주는 훈련도 결혼만족도를 증진시키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 II

자녀상담집단과 정상집단의 결혼만족도 비교

많은 임상가들은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 이면에 부

모의 갈등이 존재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 동의한다. 부부간의 갈등은 아동에게 자책과 두려움, 분노를 유발하는 주요 스트레스원이 된다.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갈등은 자녀양육에 불일치와 불협화음을 가져올 수 있어 이를 통해서도 아동의 행동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은 부부불화가 있을 때 아동에게 공격적이거나 반사회적 행동의 빈도가 많다는 것을 보고하였다(Block, Block, & Morrison, 1981; Patterson, 1975). 또한 부부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 아동은 정서적 문제와 함께 행동문제를 보인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왔다(Hetherington, Cox & Cox, 1976; Wallerstein & Kelly, 1974). 그 중에서도 Forehand, McCombs, Long, Brody와 Fauber(1988)는 부모의 이혼 그 자체보다도 부부간의 갈등이 아동의 적응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 부모의 갈등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 및 행동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박수잔, 1996; 이민식, 1999). 이민식(1999)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에 있어서 특히 내면화문제는 부모 갈등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와 같이 아동의 정서적 문제와 행동 문제는 부모의 부부갈등이나 결혼불만족과 공존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축적되어 있다(Emery & O'Leary, 1982). 최근 Jouriles, Bourg와 Farris(1991)은 부모의 부부적응과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상관성이 아동문제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임상집단에서 더 높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런 차이점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임상집단에서 부부적응의 어떤 측면이 아동의 행동문제와 관련이 깊은지 연구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들은 또한 아동의 행동문제가 부부문제를 일으킬 때 비로서 전문가의 도움을 찾을 가능성도 제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행동문제와 부부문제가 공존하리라는 가정 하에 자녀 상담집단의 결혼만족도를 평가하고,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의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나아가 아동문제로 상담소를 찾아온 자녀상담집단이 정상집단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얼마나

낮은지 살펴보고, 결혼생활의 여러 특수영역 중 어떤 영역에서 특히 결혼만족도가 낮은지 밝혀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1998년 5월부터 8월까지 서울에 소재한 J아동상담센터와 W아동상담센터에 자녀의 정서적 문제 또는 행동적 문제로 방문한 27명의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응답자의 평균 나이는 37.4세였으며 30대가 21명(77.8%)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수준은 대졸이 21명(77.8%), 고졸이 6명(22.2%)이었다. 이들의 검사 점수를 비교하기 위해 K-MSI 표준화(권정혜, 채규만, 1998)를 위해 사용된 정상집단 중 나이, 교육수준, 자녀수가 일치하는 여성 27명을 무선추출하였다. 정상집단과 자녀상담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도구 및 절차

두 아동상담센터 소장의 협조하에 방문한 아동의 어머니에게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이렇게 작성된 응답지를 수집해 컴퓨터로 자동체점하여 결과를 각 상담센터에 보내 상담자료로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8.0을 사용해 통계처리 하였다.

결 과

자녀상담집단과 정상집단 여성의 결혼만족도를 비교하기 전에 두 집단간에 인구통계학적 차이가 있는지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나이, $\chi^2(2, N = 54) = .77$, 교육수준, $\chi^2(1, N = 54) = .39$, 월평균 가계수입, $\chi^2(2, N = 46) = .72$, 로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녀문제로 상담소를 방문한 부모와 정상집단의 K-MSI 하위척도를 분석한 결과, 자녀에 대한 불만족 척도, $t(50) = -3.52$, $p < .001$ 와 자녀양육에 대한 갈등 척도, $t(50) = -3.22$, $p < .002$ 에서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

표 3. 정상집단과 자녀상담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정상집단 (N=27)	자녀상담집단 (N=27)
		빈도(%)	빈도(%)
나이	20대	4(14.8)	2 (7.4)
	30대	19(70.4)	21(77.8)
	40대	4(14.8)	4(14.8)
	평균	34.7세	34.4세
교육수준	고졸	8(29.6)	6(22.2)
	대졸	19(70.4)	21(77.8)
결혼기간	5년이하	2 (8.3)	-
	5-10년	10(41.7)	15(57.7)
	10-15년	6(25.0)	10(38.5)
	15-20년	2 (8.3)	1 (3.8)
	20-25년	4(16.7)	-
	평균	11.45	10.15
월평균 가계수입	100-200만원	1 (4.5)	1 (4.2)
	200-300만원	10(45.5)	13(54.2)
	300만원이상	11(50.0)	10(41.7)
직업	가정주부	18(67.0)	22(81.0)
	상업서비스/숙련기술직	-	1 (3.7)
	일반사무직	-	1 (3.7)
	관리직	4(14.8)	1 (3.7)
	전문직	5(18.5)	2 (7.4)
결혼상태	초혼	26(100)	27(100)
평균 자녀수		1.85명	2.00명

으며, 전반적 불만족 척도, $t(52) = -3.27, p < .01$,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척도, $t(52) = -2.14, p < .05$,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척도, $t(52) = -2.61, p < .05$, 에서도 자녀상담집단이 정상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두 집단의 K-MSI 하위척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논 의

자녀상담집단의 결혼만족도 검사 결과 중에서 자녀 관련 척도인 자녀 불만족 척도와 자녀양육 갈등 척도에서 불만족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한편 자녀상담집단의 경우 정상집단에 비해 전반적 불만족 척

표 4. 정상집단과 자녀상담집단의 K-MSI 하위척도 t 검증

		정상집단 (N=27)		자녀상담집단 (N=27)		t	유의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비일관적 반응척도	INC	5.52	2.16	6.41	2.85	-1.29	.201
관 습 적 반응척도	CNV	3.63	3.04	2.15	2.48	1.96	.055
전반적 불만족 척 도	GDS	5.14	3.89	10.15	6.92	-3.27	.002**
정 서 적 의사소통 척 도	AFC	5.22	3.11	7.37	4.21	-2.14	.038*
문제해결 의사소통 척 도	PSC	6.96	3.92	10.15	4.97	-2.61	.012*
공격행동 척 도	AGG	2.67	1.92	3.78	2.56	-1.80	.077
공유시간 갈등척도	TTO	4.93	2.76	6.22	2.59	-1.78	.081
경제적 갈 등 척 도	FIN	3.00	2.47	3.67	2.39	-1.01	.317
성 적 불만족 척 도	SEX	3.00	3.01	3.74	3.23	-.87	.388
관 습 적 성 역 할 태도척도	ROR	6.81	2.68	6.74	2.43	.107	.916
원 가 족 문제척도	FAM	3.74	2.94	4.37	4.37	-.820	.416
배 우 자 가족과의 갈등척도	CIL	1.78	1.91	4.85	2.72	-1.85	.070
자 녀 불만족 척 도	DSC	2.40	2.12	4.85	2.82	-3.52	.001***
자녀양육 갈등척도	CCR	3.20	2.68	5.81	3.14	-3.22	.002**

* $p < .05$, ** $p < .01$, *** $p < .001$

도와 정서적 의사소통 척도, 문제해결 의사소통 척도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문제가 그 영역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전반적인 결혼만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즉 자녀문제가 부부간의 애

정표현 뿐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소통에도 갈등을 일으켜 전반적인 결혼생활의 만족도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Jouriles 등(1991)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자녀문제가 부부갈등을 일으킬 때 전문가의 도움을 찾았다고 보았다. 한편 부부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의사소통 문제로 인하여 자녀문제가 좀 더 일찍 해결되지 못하고 심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자녀문제가 부부문제가 어떻게 서로 관련되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전체논의

본 연구는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혼상담 여성들과 자녀문제 상담여성들의 결혼만족도를 기준집단의 여성들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이혼상담 여성들의 결혼만족도가 성역할 태도 척도, 원가족 문제 척도, 자녀 불만족 척도를 제외한 모든 하위척도에서 기준집단의 여성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만족도가 결혼안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며,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이혼상담 여성들을 대상으로 재확인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이혼상담 여성들이 결혼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불만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도가 높음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나라 부부들의 높은 이혼율을 고려해 볼 때 결혼만족도가 낮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예방적 개입이 하루 빨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일깨워준다. 이와 관련하여 결혼생활의 전체적 불만 정도를 측정하는 전반적 불만 척도가 이혼상담 여성들과 정상 여성들을 잘 변별해 주고 있어 임상장면에서 위험집단을 가려내는 선별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자녀문제로 아동상담소를 찾은 여성들의 결혼만족도를 기준집단 여성들과 비교해 본 결과 자녀 불만족 척도와 자녀양육 갈등 척도에서 뿐 아니라 전반적 불만족 척도, 정서적 의사소통 척도, 문

제해결 의사소통 척도에서도 높은 불만족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자녀문제로 아동상담소를 찾은 여성들이 전반적 불만족 척도나 의사소통 척도에서 높은 불만족 점수를 받은 것은 자녀문제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자녀문제와 같은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잘 대처할 수 있는 의사소통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해 자녀문제가 더욱 심화되었을 수도 있다. 앞으로 연구에서 자녀문제 상담 여성들의 결혼만족도가 자녀문제의 해결과 함께 변화해 가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제한점으로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한 준거집단의 표집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확립하기 위해 좀 더 많은 표집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가 이혼상담집단이나 자녀상담집단의 전반적인 결혼불만족 정도를 잘 반영해 줄 뿐 아니라 이들이 결혼생활에서 불만족을 느끼는 문제영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어 임상현장에서 타당하고도 유용한 검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밝혀주었다.

참고문헌

- 곽배희 (1993). 이혼원인 및 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정혜, 채규만 (1998).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 '98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35-51.
- 김정옥, 박경규 (1993). 이혼의 사회적 배경 고찰. *대한정학회지*, 31(4), 83-94.
- 김충미 (1992). 며느리 입장에서 본 고부갈등의 원인에 입각한 사회사업적 개입방안. *승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수잔 (1996). 부모간의 갈등의 아동의 심리적 적응

- 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영숙 (1987). Minuchin의 이혼체계 내에서 한국가정의 고부갈등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찬비, 서병숙 (1987). 도시주부의 결혼만족도와 이혼태도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2), 145-162.
- 안소영 (1991). 결혼만족도와 이혼태도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분석.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 주 (1996). 고부갈등에 대한 사회사업적 접근.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경자, Schumm (1997).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 두 이론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5(4), 31-47.
- 이민식 (1999).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민식, 김중술 (1995). 부부관계 적응 척도(Dyadic Adjustment Scale)의 표준화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 '95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291-299.
- 이인수 (1986). 결혼만족도 척도의 타당화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인수, 유영주 (1986). 결혼만족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1), 1-14.
- 이정희 (1986). 어머니가 지각한 결혼만족도 및 자녀교육관과 양육태도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춘애, 박성연 (1993).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간의 관계에 관한 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2), 81-97.
- 정현숙 (1997). 결혼만족도 연구의 척도의 고찰을 통한 새로운 연구 방향과 척도의 모색. *대한가정학회지*, 35(1), 191-204.
- 정혜정, 서경숙 (1993). 고부갈등에 있어서 자기통제력, 탓 및 적응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119-133.
- 조경아 (1995). 이혼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연실 (1987).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lock, J. H., Block, J., & Morrison, A (1981). Parental agreement-disagreement on child-rearing orientations and gender-related personality correlates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2, 965-974.
- Emery, R. E., & O'Leary, K. D. (1982). Children's perceptions of marital discord and behavior problems of boys and girl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0, 11-24.
- Forehand, R., McCombs, A., Long, N., Brody, G., & Fauber, R. (1988). Early adolescent adjustment to recent parental divorce: The role of interparental conflict and adolescent sex as mediating variab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624-627.
- Hetherington, E. M., Cox, M. & Cox, R. (1976). Divorced fathers. *Family Coordinator*, 4, 417.
- Jouriles, E. N., Bourg, W. J. & Farris A. M. (1991). Marital adjustment and child conduct problems: a comparison of the correlation across subsamp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2), 354-357.
- Gruman, A. S., & Kniskern, D. P. (1981). *Handbook of family therapy*. New York: Brunner /Mazel.
- Lewis, R. A., & Spanier, G. B. (1979).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Burr, W., Hill, R., Nye., & Reiss, I.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1*. New York: Free Press.
- Patterson, G. R. (1975) The aggressive child: victim or architect of a coercive system?. In L. A. Hamerlynck, L. C. Handy, & E. J. Mash. (Eds), *Behavior modifications and families: Vol. 1.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 Brunner/Mazel.
- Roach A. J., Frazier L. P., & Bowden S. R. (1981).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537-546.
- Scheer N. S., & Snyder D. K. (1984). Empirical validation of the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in a nonclinical samp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2(1), 88-96.
- Schumm, W. R., Bollman, S. R., & Jurich, A. R. (1981). Dimensionality of an abbreviated version of the Relationship Inventory: An urban replication with married couples. *Psychological Reports*, 48, 51-56.
- Schumm, W. R., Paff-Gergen, L. A., Hatch, R. C., Obiorah, F. C., Copeland, J. M., Meens, L. D., & Bugaighis, M. A. (1986).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381-387.
- Snyder D. K. (1979a).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Los Angele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Snyder D. K. (1979b).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813-823.
- Snyder D. K. (1997).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Revised(MSI-R)*. Los Angele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Snyder D. K., Wills R. M., & Keiser T. W. (1981). Empirical validation of the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An actuarial approac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9(2), 262-268.
- Snyder D. K., & Regts J. M. (1982). Factor scales for assessing marital disharmony and disaffec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0(5), 736-743.
- Snyder D. K. (1983). Clinical and research applications of the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In E. E. Filsinger (Ed.), *Marriage and family assessment: A sourcebook for family therapy*. (pp. 169-189). Beverly Hills, CA: Sage.
- Spanier G. B. (1972). Further evidence on methodological weaknesses in the Lock-Wallace Marital Adjustment Scale and other measures of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4, 403-404.
- Spanier G. B. (1976). Measuring dyadic adjustment: New scales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15-28.
- Spanier G. B., & Thompson L. (1982). A confirmatory analysis of the dyadic adjustment Sca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 731-738.
- Wallerstein, J., & Kelly, J. (1974). The effect of parental divorce: the adolescent experience. In E. J. Anthony & C. Koupernik (Eds.), *The child in his family: Vol. 3. Children at psychiatric risk*. New York: Wiley.

원고접수일 1999. 5. 25

수정원고접수일 1999. 9. 15

게재결정일 1999. 11. 12 ■

A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II

Jung-Hye Kwon

Paul Kyuman Chae

Korea University

Sung 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concurrent validity of the Korean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K-MSI). As the criterion group for the first study, thirty-five female clients who sought counseling for their marital conflicts were recruited through the cooperation of the Korean Legal and Family Counseling Centers. For the second study, 27 mothers of children with behavioral problems were recruited among those who visited two counseling center for children because of their child's problems. The K-MSI scores of the criterion group subjects were compared to those of the standardization sample whose age and education were controlled.

The marital counseling group demonstrated significantly lower marital satisfaction than the normal group in all the subscales such as Inconsistency, Conventionalization, Global Distress, Affective Communication, Problem-Solving Communication, Aggression, Time Together, Disagreement About Finances, Sexual Dissatisfaction, Conflict Over Child Rearing except the subscales of Role Orientation, Family History of Distress and Dissatisfaction with Children. The mothers of children with behavioral problems also showed significantly lower marital satisfaction in the subscales of Conflict over Child Rearing, Dissatisfaction with Children, Global Distress, Affective Communication, and Problem Solving. Results indicated that the K-MSI demonstrated the concurrent validity in discriminating the subjects with marital conflicts and specific problems with children from the normal subjects, and that it is a very useful tool in screening the clients with marital and family problems in clinical settings.